

# 주택대출 금리 8%...서민들 허리 휜다

## 은행들, 증시·펀드로 유출된 자금 보충위해 CD발행 늘려 외환·기업銀 이어 속속 인상...기준금리 변경 등 대책 절실

은행권의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속속 8%대로 진입하면서 서민 대출자들이 발을 구르고 있다. 은행들이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기준금리 변경 등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택대출금리 속속 8%대 진입=2일 은행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이번주 초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6.53~8.03%로 고시했다. 대출 최고금리가 지난 주초보다 0.05%포인트 상승하면서 외환은행에 이어 시중은행 가운데 두 번째로 8%대로 진입했다.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의 주택대출 금리도 6.48~7.98%와 6.58~7.98%로 지난 주초보다

각 0.09%포인트 상승하면서 8%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들 은행의 대출 최고금리가 3일간 CD금리 평균치에 2.40%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덧붙여 결정되는 점을 감안하면 5.60%인 CD금리가 하락하지 않는 한 주중 8%대 돌파가 확실시된다.

하나은행은 6.90~7.60%로 지난 주 초에 비해 0.10%포인트 상승했으며 지난달 12일에 비해서는 풀금리 한차례 인상과 맞먹는 0.25%포인트나 급등했다. 국민은행은 6.24~7.84%로 0.09%포인트 올랐고 지난주 고액부담을 감안해 최고금리를 7%대로 낮췄던 외환은행은 6.64~7.92%로 8%대에 다시 근접했다.

은행권 변동금리부 주택대출금리가 상승세를

보이는 것은 CD금리 등 시장금리가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은행의 주택대출 금리의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CD금리는 지난달 12일 상승세를 보인 이후 지난달말까지 13거래일간 0.25%포인트 상승하면서 6년5개월 만에 처음으로 5.6%대로 진입했다.

은행들이 대출채권 마련을 위해 CD 발행을 늘리면서 올들어 지난달 27일까지 CD 순발행 규모가 28조원으로 작년 연간 순발행액 11조4천억원의 2.5배 수준으로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머니무브에 서민 대출자 몰살=주택대출금리가 시장금리와 함께 급한 오름세를 보이면서 주택 대출자들의 이자부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특별한 금리우대를 받지 못하는 서민이 작년말 우리은행으로부터 주택을 담보로 2억원을 대출한 경우 당시 연간 이자는 6.83%의 금리가 적용돼 1천366만원이었지만 향후 1.17%포인트 높아진 8%가 적용되면 1천600만원을 내야돼 연간 이자부담이 234만원(월 19만5천원)이나 급증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지난 5월 말 기준 279조2000억원에 달하는 민간주택자금대출 관련 가계부담이 연 2조6천억원 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고수익을 노린 부유층 자산가들이 은행 자금을 증시와 펀드로 이동시키는 '머니 무브' 현상이 시장금리 상승을 유발하며 예금인출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서민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택저당증권(MBS)이나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을 통해 보유자산을 유통화하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다. /연합뉴스

# ‘자원빈국’ 코리아 실감 올 연료·금속 광물 등 수입 1,000억弗

국제 원자재가격 급등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이 올해 무역흑점에서 '자원빈국'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절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공업 원료인 나프타가 대부분인 석유제품 수입액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늘어난 96억1천800만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입액(95억5천900만 달러)을 이미 넘어가고 금속광물 수입액도 17.9% 늘어난 101억4천88만 달러로 지난해 연 수입액(104억6천900만 달러)과 맞먹는 형편이다.

이에 비해 원유는 월 평균 도입단가가 지난 1월 배럴당 54달러대에서 10월에 75달러를 돌파할 정도로 급등했지만 10월까지 수입량이 7억2천153만 배럴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1.5% 가량 줄어든데 힘입어 수입액은 471억5천400만 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나는데 그쳤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도 같은 기간 96억1천800만 달러로, 전체보다 크게 낮은 2.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국내에 30개 이상 있는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이 기능 중심으로 대폭 통합된다.

자격증 통합이 이뤄지면 하나의 자격증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업계에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격증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각 금융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자격증 제도를 대폭 통합, 기능에 따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금융 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가 있으며 법정자격증도 증권투자상담사, 보험설계사 등 8개가 있다. 또 신용분석사를 비롯한 공인 민간

# 서브프라임 부실 신용경색 불구 “한국시장 자금 유출 문제없다”

금융연구원 보고서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 담보대출) 부실사태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경색으로 한국시장에서도 자금이 유출되고 있지만 이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상당기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외투자자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금융연구원 이규복 연구위원은 2일 '최근 자본수지 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올 2월과 8~10월에 자본수지가 적자를 기록한 것은 국제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으로 연결되면서 이머징마켓 중 하나인 우리나라에서도 자금이 유출된 것"이라며 "다만 이런 현상이 한국 외환시장에 큰 충격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한국이 보유하고 있는 2천600억달러의 외환보유고는 단기외채를 모두 갚고 주식·채권시장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도 30% 가량 받아줄 수 있는 금액"이며 "단기외채비율(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이나 유동외채비율(유동외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도 국제통화기금(IMF)이 설정한 안전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현대·기아차 아트드림 페스티벌 1일 현대·기아차그룹 주최로 서울 계동사옥 대강당에서 열린 '2007 아트드림 페스티벌' 참가 17개팀 단원들이 공연후 환호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올해 한국이동복지연합회 등과 복지시설 아동들의 예술적 잠재능력 계발을 위해 '아트드림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모두 3억4천만원을 후원했다. (기아차공정광고 제공)

# 애완견 전용 보험 나왔다 현대해상' 하이펫 애견' 건강보험 출시

애완견 애호가들이 늘면서 애완동물을 가입대상으로 하는 이색 보험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자동차사고로 탑승 중이던 애완동물이 죽었을 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약상품이 있었지만 애완동물 전용보험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해상은 2일 애완동물에게 발생하는 각종 위험을 보장하는 '하이펫애견 건강보험'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은 생후 6개월 이상 8년 이하인 애완동물로, 보험료는 개 종류와 연령에 따라 연 30만~50만원이다.

'행복플랜'을 선택하면 연 300만원 범위에서 치료비의 60%를, '안심플랜'은 연 500만원 이내에서 치료비의 80%를 각각 보상한다. 애완동물이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면 배상액으로 최대 연 1천만원과 2천만원을 각각 지급하고, 보상되는 질병이나 상해로 애완동물이 죽으면 '장례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지급한다. /연합뉴스

# 국민 77% “국민연금 부담 된다”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 지출 비중 많다” 인식  
소득 낮을수록 사회보장 제도 절실하게 느껴

국민 대다수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소득이 낮을수록 사회보장제도가 절실하지만 사회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느끼며 실제로 소득에 비해 사회보험료를 지출하는 비중도 높았다.

2일 통계청이 국민연금 부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5세 이상 국민의 76.6%가 '부담된다'고 답했으며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6%에 불과했다. 나머지 20.8%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특히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은 34.2%에 이른 반면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0.4%에 그쳤다.

소득별로 보면 월 100만원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79.4%를 차지했으며 100만~200만원 77.5%, 200만~300만원 77.2%, 300만~400만원 76.5%, 400만~600만원 75.0%, 600만원 이상 69.5% 등으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이 크다는 응답이 많았다.

중상상 지위별로는 상용직 가운데 국민연금이 부담된다는 응답자가 75.2%를 차지했으며 임시직 75.1%, 일용직 82.5% 등으로 고용안정도가 낮을수록 부담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부담된다'는 응답은 69.5%('매우 부담된다' 24.1%, '약간 부담된다' 45.4%)에 달했다. 반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3.7%('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3.1%,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0.6%)에 불과했고 보통은 26.8% 나타났다.

건강보험 역시 소득이 낮을수록 부담도가 컸다. 월소득 100만원 미만인 경우 '부담된다'는 응답이 73.9%로 가장 많았고 100만~200만원 70.0%, 200만~300만원 69.5%, 300만~400만원 67.6%, 400만~600만원 67.4%, 600만원 이상 66.0% 등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사회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높은 가운데 실제로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공적연금과 사회보험료 지출이 늘어난 폭이 컸다.

통계청의 3·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전국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28만2천원으로 4년 전(2003년 3.4분기) 269만1천원에서 21.9% 증가한 반면 월평균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지출액은 14만6천원으로 4년 전의 11만5천원에 비해 27.3% 증가했다. /연합뉴스

# 보험설계사·보험 중개사·회계사·세무사... 31개 금융자격증 기능별로 통·폐합

국내에 30개 이상 있는 각종 금융 관련 자격증이 기능 중심으로 대폭 통합된다.

자격증 통합이 이뤄지면 하나의 자격증으로 은행·증권·보험 등 여러 업계에서 인정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자격증의 수준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일 재정경제부와 금융계에 따르면 정부는 각 금융협회에서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자격증 제도를 대폭 통합, 기능에 따라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요 금융 관련 자격증은 국가자격증으로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가 있으며 법정자격증도 증권투자상담사, 보험설계사 등 8개가 있다. 또 신용분석사를 비롯한 공인 민간

# 상장 제조업체 투자엔 인색?

유보금 자본금의 7배 육박

상장 제조업체들이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투자에는 인색한 탓에 사내 유보금이 자본금의 7배에 근접하고 있다.

2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된 12월 결산 제조업체 가운데 관리종목이나 작년과 실적비교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한 534개 제조업체의 9월 말 현재 자본금 대비 잉여현금비율을 나타내는 유보율은 675.82%에 달했다.

이는 작년 말 626.45%에 비해 49.37%포인트 높아진 것이다.

통상 유보율이 높으면 재무구조가 탄탄하고 무상증자, 자사주 매입, 배당 등을 위한 자금여력이 크다는 의미를 갖지만 반대로 투자 등 생산적인 부문으로

# 저든 직장생활 한번쯤 다뤘으면... 직장인 93% “드라마 속 모습 공감 안가”

역대 연봉을 받고 고수급진을 하는 드라마 속 직장인의 모습에 실제 직장인들은 대부분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에 따르면 직장인 856명에게 '드라마에 등장하는 직장인의 모습에 공감하는가'라고 설문한 결과, 92.8%가 '아니오'라고 답했다.

가장 공감할 수 없는 부분으로(복수응답) 직장인들은 '억대 연봉'(48.5%)을 꼽았다. '호화로운 사무실 인테리어'(47.4%), '업무 중 잦은 외출'(47.2%), '고수급진'(40.6%), '가족적인 직장 분위기'(39.7%), '신입사원의 프로젝트 진행'(38.3%) 등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드라마에서 한번쯤 다뤘으면 하는 직장인의 모습으로(복수응답) '오르지 않는 연봉'(51.2%), '작은 야근문화'(47.9%), '짜증나는 출퇴근 모습'(42.4%), '비정규직의 어려움'(38.1%) 등을 꼽았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첨단실버병원	접수수납,간호사,간호조무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5	062-601-2131
①H&T	SK텔레콤 서부지사) 네트워크 사무직 (주5일)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12/05	062-350-6333
대우캐피탈 광주전남지사	금융영업관련 종사자 및 부동산 담보대출 전문가	고졸/경력무관	2800~3000	12/06	062-524-6900
한국도서보급주	영업사원(사무보조)부문 직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6	031-361-5106
INBET(인베트)	웹디자인	고졸/경력무관	1600~1800	12/07	062-367-9063
②네오시스템	광학 렌즈설계, 광학영상기기개발	대학원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236-2168
동산중기	경리, 회계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62-528-0088
서광이앤지	기계,전기 시설관리 직원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07	062-524-1127
③지식21	직업상담사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7	054-282-9977
옴닉게	onc 선반기공, 범용 수평선반 생산직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8	062-720-7783
태정산업	총무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600~1800	12/08	017-604-5840
④엔폴내츨링	매출점수 전산등록 여직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08	062-233-0340
⑤광주타임외국어사	매장, 영업관리직 사원	초대졸/경력무관	1200~1400	12/10	062-226-1054
헤어킷토	정규직 카운터 매니저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13	062-233-2264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로또복권 (제261회)			팝콘복권 (제8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당첨자 수	등위	당첨금(원)	당첨번호
061116183143	02		1	10억	6조
			2	5억	6조
			3	1천만	1등과 조가 다른 번호
			4	1백만	각조
1 6개 숫자 일치	3,192,299,100	3	5	1만	각조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일치	49,879,674	32	6	2천	각조
3 5개 숫자 일치	1,445,788	1,104	7	1천	각조
4 4개 숫자 일치	56,717	56,285			
5 3개 숫자 일치	5,000	929,205			